

SUNBO NEWS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6년 12월 15일

vol. 155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 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소식

선보가족, 제4회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한파 녹이는 온정 전달



초겨울 추위가 매서웠던 12월 3일 오후, 선보가족들이 연탄배달 봉사에 나섰다. 부산 감천동 골목에서 '선보공업'이 적힌 조끼를 입은 선보가족들이 촘촘히 줄을 서 연탄을 한 장씩 옆으로 건네는 모습이 활기찼다. 지게를 지고 좁은 골목길을 오르며 연탄을 배달하는 직원도 보였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땐 기쁜 숨과 함께 새하얀 입김이 새어 나왔다. 그것은 이웃의 한숨과 추위를 날려 보내는 온정이었다.

연탄봉사에 참여한 선보가족 40여 명은 2개 조로 나뉘어 홀로 사는 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에 지원한 1만 장의 연탄 중 2,3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임직원의 자녀들도 참가하여 고사리손으로 연탄을 배달했다. 남녀노소를 떠나 '참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올해는 특히 연탄값이 작년 대비 40% 이상 올랐고 기부는 작년의 20%도 되지 않아 이번 연탄 기부가 더욱 뜻깊다.

연탄 배달이 끝난 후에는 조선설계팀에서 준비한 떡과 음료를 나누어 먹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후기를 나눴다. 또, 참가한 선보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준비한 목도리를 나눠주고, 추첨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증정하는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가한 임직원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연탄을 직접 배달해보니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올해는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전한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지난 2013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진행되어 온 행사로,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단순한 일회성 봉사가 아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임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임직원 주도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를 형성하고, 선보가족 또한 새로운 기부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임직원과 함께 땀 흘리며 연탄을 배달한 최금식 대표이사는 "특정 시기 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나눔과 봉사에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생명 나눔 현행행사, 사랑의 반찬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1년 내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방문

변무장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외 당사 방문



12월 1일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변무장 본부장과 직업능력개발팀의 전동영 팀장 일행이 우리 회사의 교육시스템을 진단하고, 향후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당사에 방문했다.

변 본부장 일행은 홍보관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대1공장의 작업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 본사 옥상 의전실에서 HRD팀 김정석 차장이 우리 회사의 교육 시스템과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커리큘럼을 주제로 한 보고 발표를 진행했다. 최금식 대표이사와 변 본부장 일행은 우리 회사의 내년 교육계획 및 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수상

2016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상' 수상



11월 17일 열린 2016년도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 회사가 기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한국해양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을 겸해 개최되어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우리 회사는 계속된 불황으로 조선·해양사업 분야가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

하여 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생산수처리 시스템, LNG 연료추진선의 FGSS 등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하고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기술상'을 수상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를 견인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CEO 활동

최금식 대표이사 KNN 파워토크 ‘조선산업 대책’편에 출연

정부의 조선 산업 대책 평가와 현재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대담 진행



KNN '파워토크'에 출연한 최금식 대표이사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특별강연

최금식 대표이사는 11월 21일 KNN의 대표 프로그램인 '파워토크'에 출연, 조선업계의 불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에 대해 평론하고, 앞으로 조선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단했다. KNN '파워토크'는 부산경남의 파워리더와 화제의 인물을 만나는 대담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고 있다.

이날 파워토크 진행자 정희정 아나운서는 우리 회사를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기자재 회사로 소개하며, 최금식 대표이사와 '조선산업 대책'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조선산업을 꼽으며, 조선 관련 산업이 밀집된 부산경남은 조선업 발전에 최상의 조건이라고 평했다. 또한, 조선산업의 불황에 대해 2018년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조기 폐선 증가, 선박 평형수 처리시설 의무화, 환경규제 강화로 추가 장치 설치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최금식 대표이사는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일본 조선산업의 인력 구조조정 사례를 답습하는 우를 범하기보다 노사가 화합하여 다른 방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담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는 별도로 최금식 대표이사는 11월 11일과 22일 부산자동차고등학교와 부산동아공업고등학교의 특별강연자로 초청돼 재학생을 대상으로 명강의를 펼쳤다. '기능인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제로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목표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주변에 대한 베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높은 목표와 야망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존경받는 기능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사회·문화 소식

숲의 선물 '자연 치유' 국립산림치유원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선보기족이 있다면 국립산림치유원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올해 8월 1,480억 원을 투입해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대 2,889ha에 조성해 개장한 국립산림치유원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산림치유원은 치유복합단

지로, 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터, 테크로드 등 15개 시설과 향기치유정원, 맨발치유정원 등 9개 치유정원을 갖추고 체계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실치유숲길, 금빛치유숲길, 별바라기치유숲길 등 다양한 치유숲길을 조성해 취향에 따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치유원은 또 이용자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따라 47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 및 환경성·중독성·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기후, 운동요소, 식물요법, 정신요법 등을 통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산림치유원 개원 이전에는 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개원 이후에는 산림치유 효과를 체험하기 위한 일반인의 문의와 예약이 늘어나고 있다.

이용객들은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가의 지도 아래 최상의 산림치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길을 산책하며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 넣는 과정은 그야말로 '힐링'이 된다. 혼자 숲에 앉아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우리 선보기족들도 시간을 내어 숲길을 산책해보자. 피톤치드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면 힘차게 미래를 준비할 기운이 생겨날 것이다.

교육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 주도하는 CEO 및 임원 참석 신사업 개발 워크숍 개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조선해양기자재회관에서 신사업 개발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신사업 개발 워크숍은 창조적 혁신 수요 증대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CEO 및 임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금식 대표이사 및 임원, 정재현 박사, 이정환 고문 등 선보패밀리 총 13명이 참가

하여, 신사업 개발 개요, 신기술 및 장비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첫째 날에는 정재현 박사의 LNG 비즈니스 개요 및 LNG 핵심 장비와 신기술 트렌드, 이정환 자문의 Liquefaction Plant 사업 개요와 관련 장비 신기술 트렌드 및 협력방안 발표가 있었다. 선보 임직원 외에도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LNG 비즈니스 시장과 사업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둘째 날에는 장호길 이사의 국책연구과제 현황 및 선보 시너지 검토 발표, 사공운곤 부사장의 해외영업 사업계획, FGSS 사업회 계획 현황 발표가 이어졌다. 첫째 날보다 구체적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최금식 대표이사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강평으로 "이번 워크숍 결과가 향후 우리 회사가 나아갈 로드맵 작성 및 준비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양일간 열린 발표와 의견 교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참석자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워크숍 진행 일정상 미처 나누지 못한 우리 회사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번 워크숍으로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 철학 확산과 창의적 융복합 신기술로 기업의 신시장 개척의 활로와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회사소식

영도공장, 구평1공장 단일화 선택과 집중으로 재도약의 발판 마련

거세지는 조선·해양플랜트 업계의 불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는 영도공장과 구평1공장의 단일화를 선포했다. 11월 18일자로 통합이 완료된 구평1공장은 단일화의 새바람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영도공장의 공장장직을 맡고 있던 이청수 이사는 구평1공장의 통합 공장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측과 이청수 이사는 기존 구평1공장이 맡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영도공장의 물량 수주 능력이 상호 보완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일화를 감행했다. 올해 말까지 구평1공장은 단일화로 인해 어수선했던 분위기와 공장 내부 정리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조직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도공장은 A/S 제로, 피드백 제로, 제품완성도 100%라는 신화를 써왔다. 작업자 한 사람마다 납기 준수와 품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였다. '타 공장과 비교해 월등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아온 영도공장의 조직력이 구평1공장의 정체돼 있던 조직구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이 좋은 평가를 받아온 영도공장의 배경에는 이청수 이사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청수 이사는 단일화 된 구평1공장에 새로운 공장장으로 부임하며, 구평1공장을 최고의 조직력과 기량을 갖춘 최강의 공장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평1공장의 조직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해주면서, 구성원 간 믿음과 신뢰로 공감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 이청수 이사의 현재 1차 목표이다.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아침조회 시간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조직구성원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키워가는 비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영도공장과 구평1공장 통합 후 진행된 조직 소통 워크숍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다. 11월 25일부터 양일간 영도공장과 구평1공장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로 총 39명이 참석하여 중장기 비전과 전략목표를 세우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청수 이사는 영도공장에서 구평1공장으로 옮겨온 영도공장의 임직원들에게 "공장 존재위기 속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꿋꿋하게 자기 일에 매진해주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회사에도 감사를 표한다"는 말을 전했다.

우리 회사는 영도공장과 구평1공장의 단일화가 향후 우리 회사의 튼튼한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SE

From ME! & From NOW! & From HERE! HSE 캠페인 실시



11월 7일과 9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HSE 캠페인을 실시했다. HSE 캠페인은 '노사 모두 안전문화를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공장별로 매주 시행될 예정이다.

첫 HSE 캠페인은 다대1, 2공장에서 진행됐다. 공장별 공장장, 생산관리자, 협력업체 소장들이 참석하여 'HSE "3" 부터 시작, From ME! & From NOW! & From HERE!(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무재해를 다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은 "안전한 행동을 체질화하여 나를 지키고, 나아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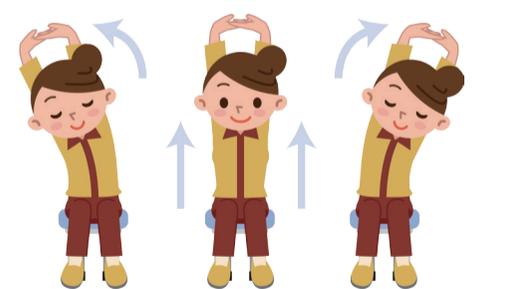
최금식 대표이사도 캠페인 현장을 방문,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안전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추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우리 회사는 안전을 위한 직원건강 증진 활동, 사업장별 유해요소 데이터 구축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내실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상식

몸속 노폐물이 쌓이는 겨울 건강한 배변 습관을 만드는 스트레칭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을 움크리고 있으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변비이다. 겨울에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이다. 체온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만큼 식욕도 증가하지만 활동량은 줄어든다. 배출되는 땀의 양이 줄고, 물을 덜 마시게 되다 보니 장속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변비는 심한 경우 치핵 및 치혈로 발전될 수 있어 초기에 관리해야 한다.



변비 증상 진단

- 3~4일에 한 번 미만으로 배변 하는 경우
- 배변 시 지나치게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
- 변이 매우 단단한 경우

변비 탈출법

-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키우고, 과식은 금물이다.
- 하루 1.5~2리터(8~10컵)의 물을 섭취하는 게 좋는데, 특히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 배변 시 신문이나 책을 읽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은 변비를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장 자극 스트레칭

- 한 발로 중심을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 스트레칭 한다. 양손은 밴드를 잡고 앞으로 쭉 뻗는다.
- 양손을 뒤로 보면 다음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가게 해 밴드를 당긴다. 크게 호흡하면서 가슴을 활짝 연다. 팔을 바꾸어 반복한다.
-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운 다음 발끝에 밴드를 고정시킨다. 복부에 힘을 쥐 균형을 잡으며 양발을 올린다. 이때 허리와 다리를 쭉 뻗어 자세를 유지한다.
- 의자에 앉아서도 장운동을 할 수 있다. 허리를 꼴뚜기 세우고 양팔을 위로 뻗어 맞잡은 후 좌우로 몸을 비틀어가며 스트레칭한다.

산업현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조사를 보면 산업현장 화재폭발사고 재해자수는 매년 약 780여 명, 적지 않은 숫자이다. 특히 화재폭발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만큼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인화성 화학물질 취급

대부분의 공장에서 방수도장 작업을 위해 유기성 화학 약품을 취급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크다.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물과 점화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용단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

용단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는 큰 재난을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시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안전과 생명을 위한 보호구는 꼭 착용

잔류된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확인 및 제거는 필수다. 용접 전 용접방화포를 끼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4. 소방방재시설 설치와 관리

모든 화재가 그러하듯 산업현장 화재폭발사고 역시 초기 화재 진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시설 설치 점검과 함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방재시설을 용도 규모에 맞게 구비, 점검하자.

수상

부산경제 진흥원 기업&청년 컴패니언십 장려상과 감사장 수상



11월 30일 기업&청년 컴패니언십 해단식에서 우리 회사가 감사장을 수여받았고, 우리 회사와 홍보협약을 맺은 로그인팀[팀장 김건호(24, 동아대 경제학과), 김소은(24,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노지혜(24,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배지영(24, 동아대 경영정보학과)]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한 '기업&청년 컴패니언십'은 부산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 홍보하고 간접적인 기업체험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회사는 '2016 기업 & 청년 컴패니언십'에 참가하여 대학생 홍보단 로그인팀과 협약을 맺었다. 우리 회사와 협약을 맺은 로그인팀은 7월 19일 협약식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약 5개월간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한 후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업&청년 컴패니언십 해단식에서는 참가 기업 및 대학생 홍보단 총 15개 팀의 활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수 팀을 선발했다. 우리 회사 HRD팀과 로그인팀은 홍보 UCC 제작, 기업방문, 실무자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 장려상 수상 및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방문

중국조선소 사절단 우리 회사의 경쟁력 높이 평가



11월 8일 중국 광둥성 조선소 사절단(선박협회 비서장, CSSC GWD 부사장 외 4명)이 우리 회사를 찾았다. 사절단은 다대1, 2공장, 구평1공장을 투어한 후 본사 접견실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LNG Application(LNG Fuel Gas Supply System)에 대한 설명, 실적사항 등 우리 회사의 Engineering 역량을 소개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조선소들에 엔지니어링 분야 개발을 권장하고 있어, "조선산업의 수요 감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 업계 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조선소들은 해양 엔지니어링, 신소재, 기계·전자 장비

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들로 이동시켰다"고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최금식 대표이사 및 임원과 중국조선소 사절단은 이번 미팅에서 중국 광둥성 내 조선소와의 업무협조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이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해보자는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해냈다.

방문

일본 서부조선학회 우리 회사 방문하여 제품 탐방



11월 15일 일본 서부조선학회 22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다대1, 2공장과 구평공장, 구평1공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회사에서 제작 중인 LNG COMPRESSOR SKID, TANK TOP UNIT, PACKAGE UNIT 등을 둘러보았다.

조선업계의 불황은 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 조선업계도 수주 가뭄 등으로 큰 적자를 보고 있다. 우리 회사에 방문한 일본 서부조선학회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둘러보며 조선소 간 협력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서부조선학회 일행은 촉박한 방문 일정에 쫓겨 우리 회사의 일부 제품만을 보고 돌아가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재방문하여 더 상세한 자구책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 ☑ **본사** 백선우(12.02) 윤기동(12.03)
박석현(12.07) 김여송(12.08)
최순찬(12.08) 이현수(12.09)
박동은(12.10) 공성문(12.10)
류삼열(12.10) 타오싱(12.11)
정차균(12.11) 김정호(12.12)
이무호(12.13) 편재웅(12.13)
김종민(12.15) 김성은(12.15)
명철환(12.15) 조속희(12.15)
채규만(12.15) 김태훈(12.17)
최상식(12.19) 여태웅(12.20)
차국현(12.20) 정상규(12.22)
김강수(12.22) 박상계(12.25)
강현욱(12.27) 김수현(12.28)
박장현(12.28) 장형구(12.29)

- ☑ **구평공장** 마진경(12.02) 노근민(12.03)
신용재(12.04) 이준호(12.06)
고영팔(12.06) 강정근(12.09)
성창훈(12.10) 황정남(12.10)
김경연(12.10) 김진우(12.10)
계영식(12.13) 김철환(12.15)
조남석(12.15) 강성민(12.17)
이성철(12.18) 문한식(12.19)
허문대(12.20) 임일산(12.24)
박현철(12.24) 변정희(12.25)
김태준(12.27) 김응규(12.27)
이몽희(12.28) 장호준(12.28)
김태현(12.28)

- ☑ **군산공장** 정세훈(12.02) 배진우(12.27)

- ☑ **영암공장** 신슬기(12.01) 허필웅(12.26)

일사 기념일

- ☑ **본사** 양호용(12.01) 문해기(12.05)
김태환(12.07) 캄비발(12.16)
푼 투(12.16) 타오싱(12.16)
최진희(12.16) 이수진(12.21)

- ☑ **구평공장** 전동혁(12.23)

- ☑ **군산공장** 디 내(12.29)

- ☑ **영암공장** 표종원(12.01) 권상웅(12.08)
친타나(12.24)